

**공동체 소식**



## 대림 제3주일

하느님 아버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자비로이 저희를 모두 부르시어, 저희가 깨끗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세주께서 오시는 길을 정성껏 마련하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해정 카타리나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대림시기**

이번주일은 전례주년중의 하나이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판공성사**

- 2구역 : 12/19 오후 7:30 홍순익 마르티노 덕
- 3구역 : 12/13 오후 7시 김병철 베네딕도 덕

**성탄 대축일 전례 안내**

- 구유 예절 및 성탄 밤미사 : 12/24(수) 오후 7시(어린이 전체 복사)
- 성탄 대축일 미사 : 12/25(목) 오전 11시
- ☞ 구유 예물은 과테말라 현지 San Miguel Escobar 본당 선교를 위해 봉헌됩니다.

**성탄맞이 9일 기도**

- 기간 : 12/15(월) ~ 12/23(화)
- 내용 : 각 가정 별로 묵주기도 5단, 혹은 형편대로

**자원봉사 국가 인증서(The President Volunteer Service Award)**

본당 내에서 복사 및 성가대 활동을 인증 받아, 학생들의 봉사 점수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최선윤 마리아 자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오늘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성탄 대축일 맞이 ‘꽃 봉헌’ 전례부에서 받습니다.
- 다음 주일(12/21) 중심미사 후, 본당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가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Joy Wok에서, 애프터는 양 돈보스코 형제님 덕에서 마련됩니다.
- 12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본당 성탄 전례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91	512	165/169	9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서은 세라피나
	문석찬 요셉	문예나 요안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재천 알베르토
		김계숙 헬레나
차주	박해정 카타리나	윤진호 스테파노
		이현주 베네딕다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차주	김경돌, 박정자, 양정희,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이우영 가브리엘,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b>12/07</b>	85명	325불	2290불
감영진, 김정원, 문석찬, 양경직, 유길수, 이영민, 주영길, 홍순익, 한봉경, 한윤성, 이우영, 정준구(총 12세대)			

☞ 감사헌금 : 이우영 가브리엘/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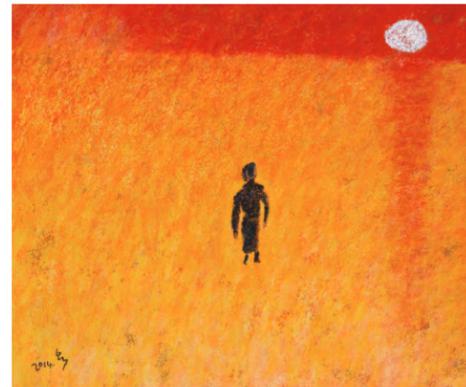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빛을 외치며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할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느님에게서 파견되었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구원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립니다.

**그림묵상**

**빛의 증인**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전해 줍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빛의 증인이 된 그는 어둠 속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찾아 오시는 가장 큰 희망이신 분을 알려주었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루실 일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61,1-2ㄱ.10-11 <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

**화 답 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리라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
- 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

**제 2 독서 :** 1테살5,16-24

<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 요한1,6-8.19-28 <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

# 쉐 마

## “구원의 기쁨”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엘리아요?”, “그 예언자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모두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들의 질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약성경에서 올 것으로 예언된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를 알리는 인물이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곧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것임을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제1독서는 구원의 기쁨을 미리 알려줍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해의 선포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억눌리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원에 있을 진정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어쩌면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에 ‘기쁨’보다 더 적절한 예는 없어 보입니다. 해방과 기쁨.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써보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체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기쁨이고 이것은 당연히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고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기쁜 일이 머지않았음을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 전해줍니다.

어느새 대림시기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의 어수선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전례에서 듣는 말씀들은 모두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역시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항구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얻게 될 기쁨이 어떤 것일지 미리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은 주교회의에서 정한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자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자선은 유대인들에게 제사나 기도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고귀한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과 자선이 하느님의 선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소중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자선을 통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 서울대교구 허규 신부 -



# 주춧돌

##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 제4-1장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19-20).**

#### 【주석】

**화해** :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하도록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사절** :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그리스도의 사절인 사도들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파견되었다.

#### 【설명】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그 화해의 직분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사제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화해의 직분을 고해성사를 통하여 수행한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성사이다.

#### 【교회의 가르침】

▶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0항).

**통회** :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痛悔)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1항).

**죄의 고백** : 죄의 고백(자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고백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친교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5항).

**보속** :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갚기 위해서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되돌려 주는 일, 모함 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 등). 단순한 정의도 이런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 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補贖)이라고 부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59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